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브릿지 칼럼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쇼핑카트 크기 키우고
혼잡시간대 빠른 음악
소비자 심리 활용하니
매출액 눈에 띄게 증가

집단에 소속하고 싶은
인간만의 강한 욕구도
소비 부추기는데 한몫

인간은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까? 허버드대 비즈니스스쿨의 제럴드 잘트먼 교수는 그의 저서 '소비자의 숨은 심리를 읽어라'에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할 때 95%는 무의식 상태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인간의 심리를 활용한 고도화된 마케팅 방법은 갈수록 의식적 소비를 줄여줄게 만든다.

고객이 구입할 때 물건을 담은 쇼핑카트와 장바구니는 지난 몇 년 사이 계속 커졌다.

브랜드의 권위자이자 브랜드 미래학자인 마틴 린드스트롬의 책 '바이올로지'(Buyology)에 의하면 쇼핑 카트를 두배 더 크게 만든 후 매출액은 19%나 증가했다. 큰 쇼핑카트에 빈 공간은 뭔가를 더 사야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때문이다.

매장에 들어오는 음악 또한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다. 혼잡한 시간대에는 빠른 템포의, 오전과 늦은 오후 시간에는 느린 음악이 흐른다. 대개 고객의 보행 속도는 음악을 따라간다. 사람들이 좀 더 느리게 걸으면 29% 이상 더 구매하게 된다.

색깔은 구매 행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별 세일 표지판을 보면 붉은 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붉은색이 주의력을 높이고 좀 더 활기차게 반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신선식품은 과일과 채소가 더 싱싱하고 신선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노란색 조명을 사용한다. 육류는 붉은색 비늘이 높은 조명, 생선은 냉백색 조명을 사용한다. 은행은 파란색을 즐겨 사용한다. 믿음과 신뢰를 주기 때문이다.

연상되게 제품을 배치하는 것은 기본이다. 치약

옆자리에 칫솔을, 스낵케티 옆에 소스를 나란히 비치한다. 이케아(IKEA)는 매장을 복잡함 미로처럼 설계하고 있다. 매장 전체를 한길로만 걸으면서 상품들을 보고 또 보게끔 하기 위함이다. 중간에 돌아나갈 생각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 지금 어디만큼 왔는지도 알 수 없다. 이때 이케아 레스토랑이 등장한다. 허기진 고객의 상당수는 여기서 주저앉았다. 3시간 넘게 돌아보고 계산을 마치면 절로 기진맥진이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1000원 짜리 핫도그와 아이스아메리카노가 노려보고 있다.

이런 일은 슈퍼마켓과 이케아뿐 아니라 패션 매장, 전자제품 매장, 화장품 및 잡화 매장 등 어디서든 마찬가지다.

저널리스트 플로리안 슈크라발은 "소비자들은 결정한 권리가 없다. 소비자는 얼마든지 조종당할 수 있으며 수요를 창출할 뿐"이라고 말했다. 수요가 공급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걸까? 흔한 이유 중 하나인 쇼핑 중독 외에도 인간은 소속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동일한 제품을 입고 먹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소속감을 드러낸다. 이들에게 소비는 기본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도구인 셈이다.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집단에 소속해 있다는 편안함을 느낀다. 동시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동일한 집단에 소속해 있다는 안전의 욕구와 자신이 개별 존재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이브리드車 전성시대

기자수첩

김상욱

산업IT부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차의 인기가 폭발적이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인기 모델 상위 3개 차종은 전부 하이브리드다. 특히 전기차의 정속성과 화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하이브리드차를 주행해보면 높은 연비는 물론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장점을 모두 갖춘 매력에 반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 맞춰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 출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뜻이 들린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 시대로 가는 과도기 단계임은 분명하다. 대부분 자동차 업계도 하이브리드차 확대를 선언한 것은 맞지만, 100% 순수 전기차 시대를 포기한 것이 아닌 기술 개발 등 제반 여건을 감안, 기한을 잠시 미룬 것일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동화 전환과 탈 내연기관 바람은 거세

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이미 디젤(경유) 차량이 줄줄이 단종 또는 생산량을 줄이며 '멸종'을 예고한 상태다.

디젤차 규제도 강화돼 4등급 디젤차에 대한 도심 진입 금지 등 관련 규제도 곧 시작된다. 디젤차는 현재 환경 개선 부담금까지 내야 한다. 유럽연합도 2026년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 '유로7'을 시행하는 만큼 전세계적인 디젤 퇴출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분간 2~3년은 하이브리드차가 자동차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이후에는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부품사인 현대모비스는 최근 미디어 테크 데이틀 통해 향후 몇 년 내로 상용화 예정인 전동화 관련 모빌리티 신기술을 선보였다. 전동화 분야만 별도로 관련 공간을 만들었고 참석자들의 관심도 전기차 관련 기술에 집중됐다. 타이어 업계도 '전기차 전용 타이어' 등을 연이어 선보이며 전동화 전환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

社說

가계부채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가계부채와 관련된 잠재 리스크는 늘 거시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해야 한다. 주택대매가격, 국민총소득(GNI), 주가, 물가나 소비자 기대지수와 더불어 금리는 주요 변수가 된다. 역대 최장 기간의 기준금리(정책금리) 동결은 어렵사리 풀렸다. 한국은행의 시간이 압박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항목이 대출 감소세 여부였다.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 시점에 영향을 미쳤듯이 이후 어느 선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도 좌우할 것이다.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한 이후의 상황 역시 가계부채에 매일 수밖에 없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대로 내려왔으나 부동산 시장 움직임은 비롯해 금융 불안 유발의 불씨는 가시지 않았다. 금리 하락이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하는지를 봐야 한다. 환율이 다소 안정화했음에도 1350원대다. 예상보다 더딘 회복을 보이며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내수, 그리고 경기 흐름 개선을 통한 성장을 위해 선제 대응하는 것도 긴요한 과제다.

금리 인하는 물론 적절했다. 그런데 조금 통화량을 뺐던 집값은 강남3구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꿈틀거리다. 부동산 부문에 대한 자극은 통화정책 전환 이후 주된 경제 대상이다. 높은 주택 가격 대비 노동시장의 가치 하락은 자산 불평등 격차도 더

벌리게 마련이다. 가계부채 오름세가 잡혀야 하는 시점은 정작 지금부터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로 급증한 것이 지난 8월이었다. 기준금리 조정의 파급 시차를 감안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지 않은지 잘 살펴야 한다. 금리 수준이 여전히 만만찮은데 가계대출이 안 꺾일 때는 경제 환경 및 정책 요인까지 두루 살펴보는 게 맞다.

과범(통화정책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당국이 할 일이 있다. 금리 인하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경기 부양에 나서려는 것이다. 산술적으로 전망하면 1년 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3번 인하하면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4조5300억원 감소할 수는 있다. 경유도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다. 경제 성숙기, 지금 같은 낮은 경제성장 시기에는 가계부채 증가는 '독'이다. 민간소비 위축과 직결되는 게 빛이다.

민간부채 부실은 이미 위험 수준이다.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면 성장 흐름과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를 함께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과의 적절한 정책조합이 더욱 필요하고 있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시기와 폭 또한 오랫동안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만들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다시 달려 있다.

원 클릭 時事

72법칙

아인슈타인은 "복리(複利)야말로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했다. 이자율을 복리로 적용할 때, 원래의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간단히 계산해주는 방식이 '72법칙(The Rule of 72)'이다. 저축이나 투자는 물론 경제성장 전망이나 인구, 저축의 증가 규모 등을 계산할 때 널리 활용된다. '72'라는 숫자를 연간 복리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과 같아

진다는 법칙이다. 현재 100만 원을 연 3% 복리이자율로 투자한다면, 원금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24년(72/3)이 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1인당 실질 소득이 연 1%씩 증가한다면 약 72년 후에 2배가 된다는 식이다.

성장론자들은 이 법칙을 응용해, 성장 속도가 1%가 아니라 2%로 2배 빨라지면 그것이 2배가 되기 까지 걸리는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되어 72년이 아닌 36년이 된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여기에 규모의 경제와 혁신까지 더해지면 그 기간은 더욱 빨라진다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 경제가 최근 급성장한 과정을 설명하는데 '72법칙'이 자주 언급된다.

브릿지경제

www.viva100.com

2014년 9월 15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5005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회장 김원식 / 대표 김현수 / 대표·발행인·편집인 조진래 / 편집국장 안의식

우)03182 서울특별시 중로구 새문안로5길 13 번화사회관 9층 대표전화 02)2070-0200 / 대표FAX 0303)0952-0200

기사제보 02)2070-0211 광고문의 02)2070-0263 광고 FAX 0303)0952-0201

구독신청 02)2070-0233 배달안내 02)2104-0981 / 이메일 bridge@viva100.com 구독료 한달 1만5000원, 1부 1000원

- 세상을 움직이는 힘! -
(조화, 통일, 해결, 성공)
4000여 년간 동서양의 석학들이 심취한
매직 스퀘어! (Leonhard Euler, Benjamin Franklin, Yang Hui, 세종, 최석정...)
-> '매직 잼' (K-마스콧트)!



Magic Gem Way 88

A B C D
E F G H

위의 그림과 같이 4개의 숫자를 합하면 88이 되는 조합이 20개임

보안의 혁신! The best mascot in the world!!!

번호 → 패턴
(10진법) (20진법)

문화+기술

매직폰



★
2개의 패턴
그리기
1/400

3개의 패턴
그리기
1/8000

잠금장치 보안성: 패턴 4개 그리기 (1/16만)

www.magicmascot.kr

* 저작권, 상표사용권, 공동투자 등 협의:
Tel: (02) 3143-3258

- 세상을 움직이는 지식! -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는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현명해진다는 것이다." - 벤저민 프랭클린 -

650여 개의 주옥같은 지식들의 모음집!!!

The knowledge of the world for leaders

개정판

★★★★★

리더를 위한
세상의 지식

이형기 엮음

초판 10쇄 후
1. 인물, 문화, 예술편
2. 역사편
3. 상식편으로 개정

개정 1쇄 절찬리 판매 중!

K-마스콧트 탑재!

저신검

현대 필독서
여행 필독서